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인터뷰 질문안

일시 : 2006년 6월 28일(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세실레스토랑

진행 : 박석(본지 주간, 상명대 중문과 교수,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장)

담당 : 김은경(본지 편집부 기자, [REDACTED])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성운동의 거목이신 박영숙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1. 선생님은 평양에서 출생하여 전남여고를 나오셨는데, 유년시절에 특별히 기억나는 일과 성장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2. 1963년 YWCA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계속 해 오셨는데, 6~70년대의 주요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3. 1980년대에는 급격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평민

당에 들어가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 이야기와 민주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4. 한국의 여성운동을 돌아보면서 떠오르는 감회를 들려주십시오.

5. 1990년부터 녹색의 전화 대표와 1992년 민주당 환경특위위원장과 한국환경사회

정책연구소장 등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환경운동에 투신한 계기나 이유가 무엇인지요.

6. 한국여성재단이 1천억 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운

동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나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또 재단의 당면한 주요 사업과 과제는 무엇인지요.

7. 이사장님께서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 세계생명문화포럼의 강연에서 말

하시기를, 시민사회운동 부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운동이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하

셨습니다. 기업은 환경친화적 경영이 시도되고 있고, 나눔의 문화 확산과 사회양극

화 해소 노력 등을 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논리와 과

학기술의 경합성, 그리고 소비 지향적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인류의 미래는 이미 파

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일부 비관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은 있는

것입니까?

8. 최근에는 미래포럼 이사장과 희망포럼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과 국가 문제에 대한 대한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출산은 교육과 여성 문제, 고용 문제와 빈부 격차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요?

9. 지금 한국사회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치적 대립이 주요 사회 갈등이라고 볼 때, 최근의 뉴라이트나 뉴레프트 운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각종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념적 양극화 - 대립
이념적 양극화 - 대립
이념적 양극화 - 대립

10. 시민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실천적 활동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 민간
공공기관 -> 민간
공공기관 -> 민간

11. 기타 필생의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거나 미래 한국에 대한 청사진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신장지대 관망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85-63번지 공덕빌딩 5층 월간 우리길벗

전화 : 02-3272-3022 전송 : 02-3273-0882

www.commongood.or.kr